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윗 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이범준 요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파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자) 사순 제3주일 2025년 3월 23일 (제2126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토/일(8am~4p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항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일 첫째 주	

제1독서 탈출기 3,1-8ㄱ.13-15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2독서 코린토 1서 10,1-6.10-12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음 루카 13,1-9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성가]	8시	입당	117	봉헌	512	성체	165	파견	123
	11시	입당	117	봉헌	512	성체	175	파견	123
사순 제3주일	3월 23일(주일)			3월 25일(화)	3월 26일(수)	3월 27일(목)	3월 28일(금)	3월 29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김미숙 말가리다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이은자 마트로나		
독서	강신호 요한 차아름 루시아	최윤기 유스타노 오자영 후주아네스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주정희 마리아		
제의방	이선미에스터	이성연 베로니카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들딸들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끊임없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3월 요셉 성월**

- 매 미사 전 기도문은 성요셉 성월기도문(매일미사 책 9쪽)을 바칩니다.

■ **2025년 사순시기** - 슬기롭고 영적인 사순시기 보내기

- ①사순시기 동안 평일미사 참례하기
- ②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하기(목요일 저녁미사/주일미사 전)
- ③사순시기 성시간 참례하기(첫 목요일)
- ④사순시기 동안 매일 당일 매일미사 책 읽기
- ⑤삼중기도 매일 기도하기(기도표에 체크하기)

■ **사순시기 특별 강론**

- 3월23일(일), 교중미사
-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 **부활 판공**

- 부활 판공 성사는 매 미사 30분 전에 있습니다
- 부활 판공 외부 신부님 판공일 :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 **Rice Bowl**

- 사순시기 희생과 보속의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Rice Bowl을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셨다가 부활절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3월 29일 토요일 미사전례**

- 제대회

■ **3월 봉성체**

- 27일(목): 실버구역, 28일(금): 알라매다/오클랜드 구역

■ **3월 성경 통독** - 필립 3,1-4.19

■ **성인 예비신자 교리**

- 3월 27일(목), 저녁미사 후

■ **청년 예비신자교리 및 재교육**

- 일시: 3월 23일(일), 대건관 4호
- 문영균 수사님

■ **청년회**

- 오늘 청년회가 대건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복가주 청년 영어미사** - 3월 29일(토), 오후 5시, 성당

■ **유아세례 신청 받습니다**

- 4월 13일 까지 사무실
- 세례식 : 4월 20일 부활 대축일 교중미사

■ **예비신자 세례식** - 4월 19일(토) 부활 밤 미사

■ **2차 현금 안내**

- 해외원조를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3월 23일(일), 1시 30분, 성당

■ **모임 및 회의**

- 알바니 : 3/23(일) 친교실
- 유니온 : 3/23(일) 교육관 107호
- 캐스트로밸리 : 3/23(일) 교육관 106호
- 하상회 : 3/30(일) 교육관 201호

■ **밥나눔 안내**

- 사순시기동안 주일 밥나눔은 없습니다. 착오없이길 바랍니다.

■ **반찬 나눔 (장조림/ 깻잎장아찌)**

- 오늘 주일 미사 후에 70세이상 신자 분들에게 장조림과 깻잎장아찌를 나눠드립니다.

■ **연도 안내**

- 샌리앤드로 구역 송인숙 수산나 부친 고 백요한 영혼
- 3월 30일(일) 미사(8시/11시)

■ **공동체 기도 지향**

- 오늘까지 공동체지향 기도는 샌리앤드로 구역 송인숙 수산나 부친 고 백요한 영혼을 위해 바칩니다.

-25일(화) 미사부터는 **공동체 기도 지향이 변경 됩니다**

박영자마리아,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정연중비오,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짜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이은자마르타, 김옥자마리아, 유낙양베로니카, 장민우,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줄리울리안나, 조지현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조진행바실리오, 김혜숙아네스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⑤ **히터 사용 후에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 **평일 성당 출입 안내**

- 월요일~금요일 평일 성당 출입은 63가 게이트로 출입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임마누엘(3/26)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사순 3 주일

오늘 제1독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양 떼를 치며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명은 아닙니다. 이미 동족에게서 배척받은 과거가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라고 답하십니다.

‘있는 나’라는 이름에는 분명히 어떤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성서의 다른 부분이나 특히 탈출기 안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당신의 성향이나 행동양식 등과 맥락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탈출기 3장의 하느님 말씀에서 찾아보자면, 12절에서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의 곳곳에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탈출 3,7-10 참조) 보고, 듣고, 알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니 그런 의미에서 늘 함께 계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3,8) “(나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3,17)

이 탈출기의 여정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겪으시고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를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이 되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사 7,14),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23)는 이름을 그분은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있는 나’로 희미하게 계시던 그분이, 신약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파스카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도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일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고 말합니다.(1코린 10,5-6 참조) 예수님께서도 빌라도가 살해한 사람들과 사고로 죽은 이들을 언급하시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루카 13,5)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여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그가 열매를 맺었는지 찾아와 살펴보고 포도 재배인을 시켜 돌보시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입니다.(루카 13,6-9 참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와 성사를 통하여, 특히 당신의 파스카로 세우신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우리는 함께 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함께 있는 분’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도 서로 함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7-8 참조) 사랑은 함께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기입니다.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기 쉬운 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하느님의 길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순시기를 맞아 제때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가톨릭신문]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6명	160명	196명					
주일헌금		교무금	BISHOP	감사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기타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옥준(1-2), 김상윤(1-3), 정순자(3-4), 한치용(3), 이상훈(3-4), 손선옥(2-3), 최윤기(3), 최명주(3)			최윤기		최윤기 최명주		최명주	

+ 미사지향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3/23(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3/26(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안중근 토마	박시몬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안공근 요한/명근 야고보	박시몬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안승찬/강석금	박시몬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안성모/광모/덕모	박시몬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상처많은 우리민족영혼들	박시몬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연	박창대 요셉/최순석 안나	박시몬
	연	조숙자 바올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박병준 스더왕	박시몬
	연	김마르코	가족		연	민소연	박시몬
	연	최순일 요셉	순배 수산나				
	연	박영자 클라라	이수나 유스티나				
	연	김정희 올리엠타	유가족	3/27(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김정희 올리엠타	김엘리사벳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아
	연	변희삼 스테파노	강요한/박글라라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연	김영자 세실리아	강요한/박글라라		연	서정원 미카엘	유성규
	연	김영자 세실리아	조진행 바실리오		연	박명순 아가다	유성규
	연	박종섭요셉/정율리안나	가족		연	최희영	최실비아
	연	백상권 요한	차영화 리디아		연	장예분	최실비아
	연	백상권 요한	송인숙 수산나		생	이명련 파트리샤	이명란 아네스
	연	차창섭 예로니모	차아름 루시아				
	연	문정법 요셉	문돔니나/힐데가르트				
	연	부모님	김제랄드	3/28(금)	생	조지현 안젤라	최영자 세레나
3/23(일)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장민우	전데레사	3/29(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조진행 바실리오	양인심 엘리사벳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조진행 바실리오	박경림 글라라가족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조진행 바실리오	이명란 아네스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황정숙 말찌나	김영선 안젤라		연	박진영 베드로	박덕희 마리아
	생	자녀들	윤루카/루시아		연	김정희 올리엠타	김승희 데레사
	생	김만옥 요안나	윤루카/루시아		연	박판기 세실리아와 조상님	최다니엘/루시아
	생	박부기 안나	이명란 아네스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최명자 세실리아	최명주 켈마
					생	민부기 안나	김옥 발바라
3/25(화)	연	최정자 켈마	이동재 안토니오		생	안기민 사도요한신부님	박시몬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안숙모 아네스	박시몬
	연	김영자 세실리아	장철호/ 송아네스		생	지구촌 모든 이재민들	박시몬
	연	이무환 요한	이막달레나		생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박시몬
	연	정윤 마오로	김옥 발바라				
	연	이길자	이카타리나/야고보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이경희 미카엘라	이요셉/ 마트로나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폴김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